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파견 후기 보고서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학년이 높아지면서 졸업 후 해외생활을 하고 싶다는 꿈이 커졌고, 교환학생이 그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졸업하면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기회라는 생각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파견대학 선정 이유

저는 외국어로 영어 구사만이 가능했고, 성적이 높은 편이 아니었기에 영어권 국가이되 교환국으로 인기가 많은 곳은 피하고자 했습니다. 고심 끝에 싱가포르 국립대(이하 NUS)와 스웨덴의 찰머스 대학을 꼽았고, 최종적으로 싱가포르의 NUS를 택하였습니다. NUS를 택한 이유로는 아시아 최고의 대학 중 하나라는 점과 싱가포르가 비슷한 아시아권으로 인종차별이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걱정이 덜하다는 점, 선진적이고 치안이 좋은 국가라는 점 등이 작용했습니다.

2. 파견대학과 지역의 특징

선정이유에서도 언급했듯이,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선진국 중 하나로 치안이 한국 일본과 비슷하게 좋은 나라입니다. 다만 한국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점은 문화로,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문화적인 나라입니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계 이외에도 말레이계, 인도계의 비중 또한 작지 않으며 나라 곳곳에서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권에 다문화 국가라는 특성상, 외국인의 입장에서 차별이나 배척 없이 쉽게 생활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NUS는 이러한 싱가포르의 최대 종합대학이자 국립대학입니다. 위상이나 전반적인 느낌은 서울대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꼽히는 대학인 만큼 서울대학교보다 앞서 있다고 느끼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한국에서 학기를 열심히 지내다 보면,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올 즈음에 student pass 신청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큰 특이사항은 없고, ICA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이메일이 안내하는 절차를 따르면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각 절차가 끝나면 다시 이메일을 받고,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전까지는 메일만 잘 확인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출국을 하고 NUS에 도착하면 모든 교환학생이 체육관에 방문하여 비자 관련 처리와 학생증 수령을 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메일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필요한 증명사진이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돈을 내고 그 자리에서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증명사진 외에도 서류가 많으니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숙소 지원 방법

기숙사 지원 또한 비자 처리와 비슷한 시점에 진행됩니다. 각 기숙사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경쟁률을 고려하여 지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교환학생은 Utown에 배정됩니다. Utown은 신식 기숙사로, 기숙사 단지 자체가 하나의 도시처럼 형성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큰 상가에 공차, 스타벅스 등 다양한 체인점이 들어서 있고 음식의 선택지도 많습니다. 수영장, 탁구장 등 친구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충분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 화장실이 딸린 1인실을 선호해서 Prince George's Park Residence (PGPR)에 입주했습니다. PGPR은 지하철 MRT역인 Kent Ridge 역 바로 옆으로 교통에 이점이 있고, Utown에 비견될 정도는 아니지만 스포츠 시설, 식당 모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 자체가 낡아 방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대부분의 입주자가 대학원생이라 교환학생 친구를 사귀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3. 현금/은행 카드

트레블카드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웬만한 생활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유익하게 현금이 필요한 순간은 PGPR 기숙사 식당(Utown은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을 포함한 호커센터 방문 시, 그리고 지하철 MRT 카드 요금 충전할 때입니다. 싱가포르 식문화를 대표하는 호커센터에서는 저렴한 대신 현금 결제가 일상적이며, 교통카드는 싱가포르에서 발급한 카드로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싱가포르 계좌를 개설하고자 한 적도 있었는데, 복잡해서 포기하였고 대부분 트레블카드로 해결되기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이 역시 메일로 오는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하고 싶은 강좌의 순위를 정하면 기숙사와 동일하게 경쟁률을 고려하여 신청이 됩니다. 편리하게 에브리타임이나 SNUTT와 유사한 NUSMOD라는 사이트에서 시간표를 구상해볼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수강신청할 시점에 이미 모든 과목의 시험일자가 나오기에 최종 시간표에 들어

가는 강좌들의 수업시간만이 아닌 시험시간도 겹치지 않도록 시간표를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생활) 필수적이고 가장 유용했던 것은 여행용 변압기와 멀티콘센트였습니다. 이외에는 우산, 물병 정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짐이 많다면 꼭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케아, 다이소 등 생필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점들이 많아 편리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침구류도 이케아에서 사거나, 학기 초에 기숙사 바자회 개념으로 전 입주자들이 쓰던 중고품을 깨끗이 빨아 싸게 판매하는데, 이를 잘 이용하면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옷) 더운 나라라고는 하나 그만큼 냉방을 많이 해 걸옷 정도는 많이 챙기라고 합니다. 다만 저는 워낙 덥다고 느껴서인지, 갈수록 걸옷을 안입고 지내어 올 때 짐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냉방을 지나치게 하는 곳은 없으니, 본인 체질을 잘 고려해서 걸옷을 챙길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현지 물가 수준

일반적으로 장 볼 때의 물가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기숙사에 살며 요리해먹을 일이 종종 있었는데, 식료품 가격이 크게 비싸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반면 외식 물가는 살짝 달랐습니다. 호커센터에서 저렴하게 먹으면 한국보다 많이 싸지만, 그 외에는 도리어 더 비쌌습니다. 정리하자면 평균 외식 물가는 비슷하나, 보다 싼 선택지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식당) 식비 관련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싱가포르 식문화의 장점은 다문화에서 오는 다양성입니다. 동남아의 다양한 음식은 물론, 중국, 인도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호커센터의 매대에도 있기 때문에 가격도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양식, 일식이나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식당도 널리 있으며,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식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식은 프리미엄이 붙어 가격이 있는 편입니다.

(의료) 해외에서 다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단 다치면 적합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NUS에서 축구를 하다가 크게 다쳐, 병원을 가야 했는데요. 우선 NUS에는 학생

들이 이용할 수 있는 University Health Clinic (UHC)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의사에게 초진을 받고,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할지 판단을 해줍니다. NUS에서 제공하는 학생 보험 처리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UHC에서 X-ray를 찍고 골절이라는 소견을 받아 NUS 산하의 큰 종합병원인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NUH)로 가게 되었습니다. NUH에 가면 처음에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접수를 하고 차례를 기다리면 필요한 처치를 해주고, 다음 진료를 잡아줍니다. 저는 골절이었기 때문에 깁스를 하고 다음 진료로 응급실이 아닌 정형외과 예약을 잡았습니다. 진료비 등은 키오스크로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 보험처리는 UHC의 안내를 따라 진행해 목발 등 부가적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원이 됩니다. 이처럼 의료 시스템 자체는 체계적이고 편리했지만, 저의 경우 NUH에서 수술을 해야 했던 것을 깁스로만 처치해주는 오진을 하는 바람에 싱가포르에서 많이 힘들었고 귀국하고도 오래 고생하였습니다. 의료 수준이 좋지 않은 것인지, 제가 운이 좋지 않았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통) NUS의 교통은 매우 편리합니다. 서울대학교처럼 교내에 무료 셔틀이 다니는데, 종류와 노선이 굉장히 다양하고 배차간격도 작아 학교 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노선을 공유하는 시내버스도 있어, 학교 어디서든 시내로 편리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통신) 창이공항에 도착하고 입국심사를 모두 마치면 공항에 cheers라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여행자들이나 교환학생들이 주로 이곳에서 유심을 사게 되는데, 종업원에게 유심을 사겠다고 하면 상품을 안내해주고 본인에게 적합한 것을 구매해서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유심 기한이 있어서 기한이 끝날 때쯤 통신사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갱신할 때 쓰던 대로 선불 상품을 이용할 것인지, 후불 상품을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학교생활 및 여가생활

(동아리) NUS에는 다양한 중앙동아리가 있고 교환학생 신분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 기숙사에도 다양한 동아리가 있어, 저는 기숙사 동아리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PGPR의 경우 영화, 체스, 운동 동아리 등이 있었고, 저는 풋살과 테니스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사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NUS 및 각 기숙사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주최합니다. 티 파티나 싱글리시 워크샵, 기숙사 웰컴 파티 등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어 좋습니다.

(여행-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지만 인공적으로 정말 다양한 자연을 보존해 놓았습니다. 보타닉 가든이 대표적이지만 도심 곳곳에서 큰 공원이나 숲길 같은 곳을 만날

수 있어, 자연을 즐긴다면 걸어다니기만 해도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워낙 유명한 마리나 베이, 센토사 섬 등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행- 주변국) 싱가포르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는 유일하게 국경을 접하는 말레이시아입니다. 특히 조호르바루(JB)는 싱가포르 바로 위에 위치해 시내버스로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1/3 수준이기 때문에 외식이나 쇼핑하러 당일치기로 친구들과 놀러가기 좋습니다. JB 외에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KL) 역시 같만합니다. 고속버스로 7시간쯤 걸리긴 하나, 박물관이나 공원, 시장 등 볼거리가 풍부하고 물가도 저렴해 아무런 걱정 없이 여행하기 좋았습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교환학생 생활 막판에 크게 다쳐 많은 고생을 했지만 후회 없는 교환학생 생활이었습니다. 영어 회화의 자신감을 늘린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사귀면서 목표도 달성하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작지만 분명 매력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일민족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느끼기 어려웠던 다문화 경험을 하는 것도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즐겁고 많이 배우는 한 학기가 되었고, 좋은 경험을 겪게 해주신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와 공대 국제협력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